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 | | | | | | |
|------------|---|-------|-----------------|--------------|-----|--------------|
| | 담당 부서 | IT검사국 | 담당자 (직위, 성명) | 안기복 선임검사역 | 연락처 | 02-3145-7429 |
| 요청대상 행위 | <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가 내·외부통신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환경에서 DMZ 구간에 위치한 서버가 생성*한 파일을 망연계솔루션을 통하여 내부망 서버로 전송**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위반인지 여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최신 법령정보 및 업무규정 변경사항을 수집·가공(xml, json) ** 실시간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스트리밍 방식이 아닌 파일 송수신 방식 | | | | | |
| 판단 | <input type="checkbox"/>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판단이유 | <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해킹 방지를 위해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하며,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이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input type="checkbox"/>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가 외부통신망에 해당하는 DMZ 구간에 위치한 서버에서 생성한 파일을 망연계솔루션을 통하여 내부통신망으로 반입하는 것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div style="margin-left: 20px;"> <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간 자료 교환을 위해 보조기억장치 또는 망간 자료전송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고, <input type="checkbox"/> 이때 외부통신망에 있는 업무자료에 대하여 악성코드 검사 등 적절한 통제 절차를 적용하여 망간 자료전송시스템 서버 간에 실시간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스트리밍 방식이 아닌 파일 형태로 전송하는 것은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여전히 분리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div> | | | | | |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제2항 참조)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